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42호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체육시민연대 前 공동대표**

**강신욱 교수 체육회장 선거 출마..."준비된 리더십, 강력한 변화"**

권종오 SBS 기자

**스포츠는 사회의 축소판(microcosm)**

**지금은 스포츠 대전환 시대...새판을 짜자**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ICT융합학과 교수

**인권감시관 예산 3억1,000만→5,000만원**

**'그 사람들 죄 밝혀달라'는 운동선수 유언...정부 예산은 6분의 1로 급감**

유대근 한국일보 기자

**메시 디지털뉴스룸 데스크 칼럼**

**스포츠는 각본없는 드라마?... 선수만 공정해선 안돼**

차상엽 메니S 기자

**시설 측 "고령 회원 안전 사고 위험"...노시니어존 논란**

**'NO시니어존' 스포츠시설에 "인권 차별"... 인권위 판단**

최예슬 국민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강신욱 교수 체육회장 선거 출마... "준비된 리더십, 강력한 변화"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오늘(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에 열리는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체육 역사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리더십을 갖추고 강력한 변화를 통해 세계에서 제일 운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 체육계가 혼란과 불명예의 중심에 서 있다. 체육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 행위자들은 레드카드를 들어 단호히 퇴장을 명해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면 강 교수는 가장 먼저 정부와 이른 시일 내에 상호 생산적인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 육성, 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비와 운영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신욱 교수는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통해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을 막기 위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등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될 경우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8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출신인 강 교수는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전농여중 하키부 감독을 지냈습니다.

1989년부터 단국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정년 퇴임 후에는 명예교수로 위촉됐습니다.

아울러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2005~2013년)를 비롯해 한국체육학회 회장(2016~2017년)과 대한체육회 이사(2017년) 등 다양한 체육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강 교수는 "세계에서 제일 운동하기 좋은 나라는 빠른 체육계 정상화를 통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소통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수, 지도자, 교수, 행정가로 다채로운 이력을 쌓은 강 교수는 2021년에 치러진 41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현 이기흥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25.7%)을 기록해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보였습니다.

# 지금은 스포츠 대전환 시대...새판을 짜자



매일경제 사외칼럼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ICT융합학과 교수

'스포츠는 사회의 축소판(microcosm)'이다. 현실과 이상, 구조와 모순까지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스포츠 세계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지고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스포츠에서 발견할 때가 있다.

반면에 짙은 농도의, 찌든찌든한 어둠이 드러날 때도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축구와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딱 그렇다. 이는 단순히 몇몇 조직의 치부가 폭로된 것이 아니다. 스포츠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을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어리둥절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서 분노하게 됐고, 지금은 약간의 기대도 있지만 대부분 불안한 눈길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안 선수의 발언 당시만 해도 '매니지먼트 회사의 음모'니 '어린 선수의 이기적 욕심'이니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모두 틀렸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원인을 명확히 진단해야 하고, 과녁을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단언컨대, 현 사태의 원인은 아직도 많은 스포츠 조직에 뿌리를 틀고 있는 뿌리 깊은 (무)의식과 관행, 악습에 있다. 그 기원은 군사정권 시대를 넘어 스포츠가 한반도에 소개된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회장이 내부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측근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개인의 권리를 조직 논리로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그 조직의 '습속과 행태'는 후진 것이다.

실력보다 권위가 위력을 발휘하고, 과정보다 결과가 우선시되어 자율을 억압이 압도하는 스포츠 조직이라면 미래는 없다. 선수들은 이제 강요된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스포츠맨십에 의해 달성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낀다. 문제는 과거 권위적인 정권에서 힘을 발휘하던 작동 논리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포츠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 새롭게 판을 짜고 재도약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다. 선수와 국민은 '성과'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 가자고 요구한다. 권력과 강제에서 과학과 시스템으로, 당근과 채찍에서 지속가능한 스포츠 문화로 가자고 한다. 한국의 스포츠를 주도하는 한 줌의 집단이 과거의 관행과 습관, 인식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저 제거돼야 할 걸림돌일 뿐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물론 스포츠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스포츠의 가치를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제5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의 스포츠 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과 자율성, 민주성을 갖는 스포츠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의 힘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지난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 중 하버드대 졸업생이 육상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뉴스가 화제였다. 스탠퍼드대 졸업생의 금메달이 30개가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스포츠 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있는데 '회장천국, 선수무덤'인 나라에서 산다면 너무 참담하지 않은가. 스포츠계의 새판을 짜자.

우리딸

엄마 사랑해

오전 12:27

우리딸

그사람들죄를 밝혀줘

오전 12:28

딸전화좀받아봐

# ‘그 사람들 죄 밝혀달라’는 운동선수 유언... 정부 예산은 6분의 1로 급감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 저 사람들이 그냥 무섭고 죽을 것 같다.’(고 최숙현 선수가 생전 남긴 일기 내용 중)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동료들로부터 폭행,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핵심 기능인 인권감시관(인권살피미) 사업을 크게 축소할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감시관은 훈련장, 경기장 등 스포츠 현장에 파견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가해자)의 죄를 밝혀달라’고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던 최 선수의 뜻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6분의 1로 대폭 줄이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억1,000만 원이었던 인권감시관 관련 예산은 올해 5,000만 원으로 82% 삭감됐다. 정부가 짚 내년 예산안에도 5,000만 원만 편성됐다. 현재 인권감시관으로 위촉된 현장 전문가는 9명이다.

인권감시관 예산이 사실상 줄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스포츠윤리센터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권감시관 예산 중 5,000만 원을 떼어내 연구 개발비에 쓰도록 했기 때문이다. 쓸 돈이 줄어든 탓에 인권감시관 사업은 크게 위축됐다. 예컨대 인권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면 상담을 원래 계획보다 20회 적게 했고,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조사 전문위원들의 기본·활동 수당 등도 4개월치나 삭감됐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정부 방침상 공공기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는데 인권감시관 예산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권감시관 예산을 전용해 연구 개발비에 쓴 것을 두고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운동 지도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비리 사건은 체육 단체의 견고한 위계 질서와 집단 우선주의 때문에 발생해 드러나기 어렵다"며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사업은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데스크칼럼] 스포츠는 각본없는 드라마?... 선수만 공정해선 안돼

흔히 스포츠에서의 명승부를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표현한다. 틀에 박힌 표현이지만 스포츠에서의 결과는 드라마와 달리 각본이 없다. 결과를 알 수 없는 만큼 각본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사람들이 스포츠에만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당연히 열광한다. 하지만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드라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스포츠가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출전 선수들이 동일한 규정 하에서 공정한 대결을 통해 얻은 결과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스포츠는 정치적 논리나 빈부격차, 사회적 신분 등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더 노력한 선수들이 승리하는 장르다. 이는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한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편법을 동원한 승리나 기록에는 찬사가 아닌 비판이 쏟아진다. 과거 국내 한 프로야구 감독은 소속팀 선수들의 기록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쓰면서 "비난은 잠깐이지만 기록은 영원하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세워진 기록들은 수십년이 지난 현재 '부끄러운 기록'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채 감추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제 편법은 강도높은 비판을 받는 시대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최선을 다한 은메달리스트는 당당하게 웃을 수 있고 대접도 받는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페어플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페어플레이를 선수들에게만 강조해선 안된다. 선수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종사자 누구나 지켜야 할 덕목이어야 한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축구 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단순히 유명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서가 아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협회 스스로가 정한 규정을 무시한 채 사실상 밀실에서 선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납득할만한 투명한 절차를 거쳐 홍 감독을 선택했다면 반대하는 주장은 있을지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각본에 짜인 듯한 선임이었지만 그 누구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홍 감독의 잘못도 없진 않다. 말고 있던 K리그 팀을 떠나지 않겠다고 팬들에게 공언했지만 불과 이틀만에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다. 나름대로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지만 궤변에 불과했다.

대표팀 경기는 전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팬들은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오르지 못해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16강 혹은 그 이상의 호성적을 올린다해도 협회나 감독을 향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협회가 각본없는 드라마에 각본을 도입하면서 스포츠 정신을 스스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 ‘NO시니어존’ 스포츠시설에 “인권 차별”... 인권위 판단

최근 ‘노키즈존’(어린이 출입 금지)에 이어 ‘노시니어존’(노인 출입 금지)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자칫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 만 68세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나면 즉각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런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에게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고, 부주의나 건강상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노시니어존’ 논란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SNS에서 한 카페 출입문에 붙은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문구가 화제가 됐다. 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에 앉아 있던 어르신 손님에게 점주가 ‘젊은 고객들이 안 오고 있다’며 나가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제천,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 "지역경제도 활성화"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8043900064?input=1195m>

정관장, 건강 걷기 행사 참가비 6000만원 서울시체육회에 기부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0280057>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스포츠 기업 홍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28000816>

'안양시 장애인복합문화관' 개관... 장애인 체육활동·평생교육 새 지평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1028025493341>

천안시체육회, '제3회 천안 이봉주마라톤대회' 5천여명 참가 성료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028010007324>

"무섭냐고요? 아뇨 너무 재미나요" 클라이밍 즐기는 초등생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10281447003?pt=nv>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 9800여 체육인, 전국체전 열기 잇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2601215318233>

수원시체육회, 일본 사이타마시와 한일 축구클럽 친선전 진행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4855>

北 체육절 75주년 기념... 전국 도대항 체육대회 개최

<https://www.news1.kr/photos/6952273>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